

대구주보

연중 제16주일, 농민 주일

2020. 07. 19. (가해) 제2223호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마태 13,30)



‘밀과 가래지의 비유’, 아브라함 블뢰마르트, 1624년, 미국 볼티모어 월터스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들



교구 노동사목부장 | 김호균 마르코 신부

저는 '도시락'이라는 말보다 '벤또'라는 말이 익숙한 세대입니다. 아마 저보다 더 윗세대 분들에게는 그 말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더욱 남다를 것입니다. 학교에 '짜 가지고 갈 밥이 있다.'라는 것은 어른 세대에서는 사치인 분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자존심 때문에 교실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수돗가 물을 들이켜고는 '꼬르륵' 소리에 얼굴 붉어지던 때가 '벤또'의 뚜껑 안에 들어있는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로부터 '벤또'라는 말을 '도시락'이라는 말로 교정 받을 즈음 짜 가지고 갈 것은 '들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갈등하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딱 그즈음에 살았던 저의 기억이 도시락 보자기 바깥으로 펼쳐집니다. 집에서야 어떻게 먹든 친구들에게 보이기 싫었던 보리밥 비율이 그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한 줌의 쌀과 아홉 줌의 보리쌀이 섞인 밥은 그렇게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쌀은 돈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돈은 학비와 생활비로 넘어가는 부모님들의 살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친구들에게 도시락으로 드러날 가난에 대한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가족들의 눈을 피해 쌀밥을 두세 숟가락 육여넣었던 기억 또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때부터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먹고 살 만해졌습니다. 그것을 당연

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은 마치 조선시대 이야기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련하기만 합니다. 더군다나 배고픔을 겪어 보지 못한 세대에게는 그 고통의 의미는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올해 들어 재미있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사막의 나라 아랍에미리트에 한국 농촌진흥청에서 벼농사 기술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뉴스의 깊은 의미는 '농업기술의 선진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국가는 몇 배의 돈을 주고 비행기에 싣고 있던 마스크를 가로채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몇 배의 돈을 지불해야 되고, 위기 상황에서는 윤리도 동맹이고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 배가 고프는데 내가 먹을 것을 남에게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배가 불러야 남에게 주고, 내가 먹고 남아야 양보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가 폭증하고 환경이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은 배부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농민 주일**입니다.

"농촌 생활의 문화가 공업이나 서비스 부문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도시인의 생활수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어머니요 스승』, 125항) **필문**

여유를 가져 볼까요?

- 중간정리 : 내가 알게 된 것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저 자신에게 ‘잠시 여유를 가져볼까?’ 하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열 번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며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1월 5일부터 ‘치유’를 향한 심리 정서적 여행을 해 왔습니다. 치유는 무엇이며, 그 전제조건은 어떠한지 그리고 치유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방해하는 원인과 결과물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치유는 외부 개입에 의한 치료와 다릅니다. 치유에는 자가-치유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슬픔, 고뇌와 외로움, 상황의 어려움으로 매우 자주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날 치유해 주었으면, 누군가에게 치유를 받았으면’ 하는 수동적 태도만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는 속담처럼 아무리 누가 도와주고 애를 쓰고 묘안을 제시해도 당사자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수동적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심해야 할 네 가지 전제조건을 제안했습니다. ① 겸손 : 하느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아는 것. ② 희망 : 인과론에만 빠져 있기보다 목적론으로. ③ 믿음 : 하느님을 믿고 그런 나를 믿는 것. 나 자신을 믿어주는 일. ④ 사랑 : 사랑은 생존이며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 이러한 전제조건들은 치유의 본질을 알아들게 하며 우리 자신을 준비시킵니다. 그러나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 고집, 불균형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투사해 놓고 착각합니다. 그러고는 고집을 피우고 편향된 사고와 태도를 고수하다가 불균형 상태에 빠집니다. 그 결과 불안은 증첩되고 무기력을 반복 체험합니다. 그런 나를 스스로 더욱더 옥죄고 힘들어합니다.

간략하게나마 정리를 해놓고 나니, 지난 글에서 성급했던 부분, 아쉽게 느껴지는 내용, 부족한 점들이 생각나 부끄럽고 축스러운 감정이 올라옵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더 잘할 방법은 없나? 아.. 왜 한다고 해서...’ 이런 생각도 스칩니다. 침투사고라고도 하지요. 이 사고를 따라 흘러가다 보면 자기부정과 비하가 시작되고 맙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 저 자신에게 말합니다. ‘뭐 어때? 이게 지금 나의 최선인데. 부족하고 아쉽고 성급해도! 부끄럽고 축스러워 외면하고 숨고 싶어도! 뭐 어때?’ 잠시 쉬어가는 여유 속에 만나게 된 저를 그냥 인정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을 만나고 인정하고 나아가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마태 22,39)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 이는 자신을 사랑하고 슬기를 간직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는다.” (잠언 19,8) **필독**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교구 교정사목부장 | 김종률 스테파노 신부

지난 7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교정대상 시상식이 있었다.

교정대상은 교정본부와 서울신문사, 그리고 KBS 한국방송 주관으로, 교정교회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 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시상식으로, 교정 관련 가장 큰 상이다.

올해로 38회를 맞이하는 시상식에서 6명의 교정 공무원과 11명의 민간 교정위원들, 그리고 단체로는 우리 빠스카교화복지회가 수상했다. 역대 수상단체들 가운데 민간단체는 우리 빠스카교화복지회가 최초였다.

교정위원들에게 수여되는 상에는 천주교(자애상), 개신교(박애상), 불교(자비상) 3개 종교에 각각 2명씩과 그 외 공로상, 장려상 등이 있었다. 올해 천주교 자애상은 민들레 국수집 대표와 청주교구 교정사목담당 신부님이 받았다. 역대 천주교 자애상 수상자 가운데 우리 교구 교정사목 봉사자는 3명이 있다. 다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정사목 봉사자로 활동하신 분들이다.

올해 자애상 수상자가 운영하는 민들레 국수집은 인천에 있는 무료급식소이다. TV에 소개된 적도 있는 꽤 유명한 곳이다. 그분은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면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경북 북부 제1교도소(청송 교도소)의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종교 교화 활동을 20여 년째 하고 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자애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다.

그분의 수상소감이 참 인상적이었다. 다른 수상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교도소와 인연을 맺었는지, 자신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자랑하기에 바빴지만(어쨌든 그분들도 모두 대단하신 분들이다.) 민들레 국수집 대표는 간결하면서도 감동적인 소감을 발표했는데, 소감의 마지막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다.

“교정대상 상금으로 5백만 원을 받게 되어,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무엇을 살까 생각 중이었는데, 제 안사람이 ‘우와, 이 돈이면 한 사람당 3만 원씩 160명 정도에게 영치금을 넣어줄 수 있겠어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저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긋한 미소를 지으며 수상소감을 발표하는 민들레 국수집 대표를 보며 나는 부끄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다. 상을 받으러 올라가는 길에, 저 또한 동행한 직원과 함께 그 상금으로 무엇을 살까 나름 행복한 고민으로 들떠있었기 때문이다. 신부인 저보다 훨씬 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였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남들이 부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할 정도로 주님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보자. 상상만 해도 기쁘고 행복하지 않은가? **김종률**



원시장 베드로 (1732~1793년)

원(元)시장 베드로는 1732년 충청도 홍주 응정리(현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의 양인(良人)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지 몇 해가 지난 1788~1789년경, 즉 56~57세가 되었을 때 사촌 형 원시보 야고보와 함께 천주교 교리에 대해 듣고 입교하였다. ‘시장’은 그의 관명(冠名)이다.

어느 날 원 베드로는 집을 떠나 1년 이상 다른 지방에 가서 생활하면서 교리를 공부하였다. 그동안 그는 ‘천주교 신앙이 수천 년 동안 목숨을 보전해주는 약’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친척과 친구들에게 천주교의 주요 교리를 설명해 주었다.

본디 원 베드로의 성격은 사납고 야성적이어서 ‘호랑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였다. 그러나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동안 성격이 변하여 어떠한 일에서나 온화함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는 가난한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거나 이웃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시키는 데에 열중하였다. 이 때문에 그의 이름은 관장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나자, 관장은 포졸들을 보내 원시장과 원시보를 체포해 오도록 하였다. 이내 원 베드로는 홍주 관장 앞으로 끌려 나가 문초를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관장의 어떠한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았고, “천주를 배반하거나 동료들을 밀고할 수 없으며, 교회 서적이 있는 곳도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여러 달을 옥에 갇혀 있는 동안 원 베드로는 자주 끌려 나가 배교를 강요당하고 형벌을 받았는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포졸과 형리들에게 전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우가 그를 만나러 옥으로 찾아왔고, 이때 원 베드로는 그에게서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동안 홍주 관장은 감사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감사에게서 ‘원시장을 때려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에 관장은 다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 갖은 형벌을 가하였지만, 한결같은 그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다. 관장은 마지막으로 혈육의 정에 호소해 보기로 하였다. 원 베드로를 기다리고 찾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식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제 마음을 크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천주께서 친히 저를 부르시니, 어찌 그 목소리에 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홍주 관장은 이 사건을 빨리 마무리짓고자 죽을 때까지 매질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소용이 없자 그의 몸에 물을 붓고 밖에 내다 놓아 얼려 죽이라고 명하였다. 덮어쓴 물은 이내 얼음으로 변하였고 그런데도 그는 오로지 주님의 수난만을 생각하였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목숨을 하느님께 바쳤으니, 그때가 1793년 1월 28일(음력 1792년 12월 17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61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제25회 농민 주일 담화

생명 농업, 지구와 인류의 희망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농민 주일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례

| | | | | | |
|---------|---|---------|------------|-----|--------------|
| 제 1 독 서 | 지혜 12,13,16-19 | 제 2 독 서 | 로마 8,26-27 | 복 음 | 마태 13,24-43. |
| 화 답 송 | ◎ 주님, 당신은 어질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옵니다. | | | |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알렐루야. | | | | |
| 영 성 체 송 | 당신 기억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 | | | |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0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 강 : 9.1(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강료 : 과목당 70,000원(2과목 이상 신청시 과목당 60,000원)

문 의 : 가톨릭신학원 사무실, 660-5105

교회봉사자 양성과정 개설

교회 내 제단체 봉사자들을 위한 성경과 신학 입문 강좌가 새롭게 열립니다.

8월 31일 개강 매주 월요일 19:30~21:30

※ **DuM** KakaoTalk **플러스친구** 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추후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일정 변동 가능



미사 안내

| | | | |
|-----------------|----------------------|------------------|------------------------|
|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 7월 20일(월) 11:00 계산성당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 7월 22일(수) 14:00 성토마스성당 |
|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 7월 20일(월) 11:00 죽도성당 |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 7월 25일(토) 11:00 순례자성당 |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미사 | 7월 22일(수) 10:00 죽도성당 | - | - |

8월 가나 강좌

일시: 8.9(일) 10:00 ~ 13:10 ※ 시간 엄수, 사전접수, 현장접수 불가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대상: 혼인을 앞둔 미혼 남녀(예비 부부) / 25커플

(신청인원 초과시 혼인 날짜를 우선으로 연락드립니다.)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7.30(목) / **참가비:** 2인 3만원

입금: 대구은행 504-10-131272-3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고, 유증상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영화 **부활** 할인 이벤트

할인상영관: 전국 CGV

할인 방법: 주보나 온라인 주보의 본 안내문을(촬영 또는 실물로) 영화관에 지참 시 6,000원에 발권 가능(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극장 매표소에서 결제시 확인 후 할인 적용 / 타쿠폰과 중복 할인 불가)

<올지마 톤즈> 후속영화 <부활>은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던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이 성장한 모습을 기록한 다큐영화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사랑과 헌신이 제자들을 통해 큰 희망의 불꽃으로 살아나고 있는 실화는 '부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본 쿠폰 적용 시
6,000원에
관람 하실 수
있습니다.

할인기간 :
7월 23일(목)까지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10방향 200m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울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

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

원장 이정수(요한) T. 053)327-0300
대구 3호선 필거역 4번 출구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정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윤영희 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영희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20m)

리스토리결혼정보

국내 / 국제 결혼 전문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1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신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임청(베드로) 신부
1981년 7월 20일

성소 | 피정

예수고난봉쇄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장소: 청주 예수고난봉쇄수녀회
문의: (043)295-5940
cpnunskorea@catholic.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시: 7.27~29, / 7.31~8.2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예수마음 기도 영성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3박 4일: 7.27~30 / 8.1~4(미혼)
8박 9일: 8.5~13 / 9.15~23
40일: 10.6~11.14 / 12.22~1.30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8월 평화계곡피정의집 향심 기도 피정

1박: 8.1~2 / 2박: 8.7~9 / 8.21~23
대상: 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선착순 10명)
문의: (010)3422-7587

행사 | 모임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7.20(월) 11: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780-4535

교육 | 모집 | 기타

청년국 음악팀 노엘 단원 모집

찬양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모집합니다.
분야: 키보드, 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 음향, 영상 편집, 프로그램 기획
문의: 교구 청년국, (010)2574-8770

2020년 2학기 신학·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성경입문, 신약성경과정, 구약성경과정,
신학입문, 신론, 철학, 마리아론,
동양고전, 그리스도교와 불교,
철학과 그리스도교 등
개강: 9.1(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교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색소폰, 우쿨렐레, 제대꽃꽂이, 발성법,
지휘레슨, 서양화, 음악연습실 대여,
태극권, 가곡성가, 사범자격과정꽃꽂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7.24~26 / 7.28~30 / 8.7~9
장소: 제주성지 7곳(성지해설)
지도: 안성철(마조리노) 신부(바오로수도회)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회
문의: (064)805-9890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 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채용 | 안내

범어대성당 전기직 유경험자 채용

서류: 이력서, 자격증사본,
교적증명서, 본당주임신부 추천서
근무지: 범어대성당
문의: 범어대성당, 790-130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개원 40주년 기념
(신자 특별 할인 이벤트)

일시: 8.3(월)~31(월)
종합검진센터: 650-4114, 4123
일반검진센터: 650-4590, 4591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신부 추천서
광고게재일: 8월 16일 / 12월 27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공정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불박이,신발장,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원룸,투룸 **용달이사**
한역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한투어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 053)427-7090
안상덕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의·의협박사 | 최희민(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북원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053 943 9380

발아정형외과에서 발 건강의 싹을 틔우세요.
발아정형외과
무지외반증 수술, 발목내시경,
족저근막염, 시간신경증, 평발치료.
원장 윤현국(비오) 721-8879 (발발친구)
수성구 황금네거리에서 롯데캐슬방향 500m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DCMC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장례식장 053)650-4444/657-4444
성요셉요양병원
장례식장 053)617-3644
가톨릭 신자 시설사용료 20% 할인

수맥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 1588-5335